



[르포] 'N' 개발기지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에 가다 05



Life

[금융] 100년만에 서울시금고 뺏긴 우리은행에 거센 후폭풍 06



# 착한 구매로 착한 나눔을... 10대들과 소통하는 '스쿨 캠페인', 휠라가 쏜다



지난해 6월 휠라가 한 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휠라 슈즈를 선물로 제공했다.

/휠라코리아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84 휠라코리아

기부로 대표되던 기업의 단순 사회공헌활동이 지속적인 상생을 추구하는 '공유가치창출(CSV·Creating Shared Value) 활동으로 바뀌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기업의 수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양방향적 소통과 상생을 이루는 셈이다.

휠라(FILA)는 10대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스쿨 캠페인' 시리즈를 기획,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휠라는 지난 1월부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2018년 신학기 고객들의 착한 구매를 통해 착한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가 함께했'S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해당 컬렉션 제품 누적 판매 10건 당 전국 소년소녀가정 1명에게 휠라가 준비한 신학기 제품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휠라는 캠페인 기간 동안 누적된 기부 참여 총계에 따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전국 소년소녀가정들에게 신학기 제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캠페인은 지난해 코트디리엑스 100만족 판매 돌파를 비롯해 브랜드에 보내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지난해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코트디리엑스 - 우리반 짝꿍 콘테스트'에서 영감을 얻은 휠라 고유의 가치 공유(Value Sharing) 캠페인이기도 하다.

향후 휠라는 지난해 '착한 운동화'의 대명사로 떠오른 코트디리엑스를 매개로 올해는 공유가치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 실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며 휠라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국 중고생들의 응원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전국 소년소녀가정 친구들 앞으로 온 응원 메시지가 약 8500여건에 달한다.

이에 휠라는 전국 청소년들의 열렬한 참여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소년소녀가정에게 응원 메시지를 가장 많이 남긴 Top5 학교를 선정해 전교생 전원에게 휠라 슬라이드를 증정하는 'Top5안에 들었'S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트디리엑스 우리반 짝꿍 콘테스트'에 참여한 1만 8000여 명 전원에게 휠라 클래식 슈즈를 선물한데 이어 콘테스트 1등 학급이 속한 대구 남산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전교생에게 휠라 티셔츠를 선물하는 등 전국 중고생들의 열띤



휠라 키즈 파란캠페인 이미지.



휠라 2018 신학기 백팩 화보.

/휠라코리아

착한나눔 실천 '우리가 함께했'S 캠페인 판매 10건당 소년소녀가정에 제품 지원 응원메시지 이벤트로 휠라 제품 선물도

자폐성 장애 돕는 '파란캠페인' 통해 3년간 휠라키즈 판매수익금 일부 기부 '2018 세계자폐인의 날' 장관표창 수상

참여에 감사를 표했던 것과 맥을 나란히 하는 행사다.

휠라측은 "기존에는 5개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학생들의 뜨거운 성원과 응원 열기에 힘입어 상위 10개 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휠라 슬라이드를 선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휠라 키즈(FILA KIDS)도 꾸준한 이웃 사랑 실천으로 주목 받았다. 휠라 키즈는 2016년부터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파란캠페인'을 시행해왔다.

파란캠페인은 휠라의 자회사인 휠라USA에서 시작된 캠페인이다. 세계 각 지역의 명소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뜻하는 파란색의 붓을 밝히는 'Light it up blue'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서 시행했다.

휠라 키즈는 2016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고 자폐증과 자폐성 장

애를 겪는 이들에 대한 인식개선 취지로 해당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진행하는 파란캠페인은 세계자폐인의 날(4월 2일)을 기점으로 휠라키즈의 전용 컬렉션을 출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펼쳐진다.

파란캠페인을 상징하는 '블루 라이트'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휠라 키즈의 제품을 구매하기만 해도 캠페인에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특별히 파란캠페인 컬렉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블루 라이트 나노블럭'도 제공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파란캠페인은 캠페인 아이템을 기존 운동화에서 의류, 용품까지 확대했다.

한편 휠라 키즈는 파란캠페인을 3년 연속 실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자폐인의 날이었던 지난 2일 '2018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자폐인 희망실천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휠라 관계자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큰 사랑에 보답함은 물론 고객들에게 직접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고 공유하고자 다양한 CSV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환원, CSV 활동을 통해 소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다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